

「회원의 소리」

運用的 妙에 기대를

鄭 淑

내협회의 살림이 老將에서 中將으로 옮겨졌음은 우선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라고 생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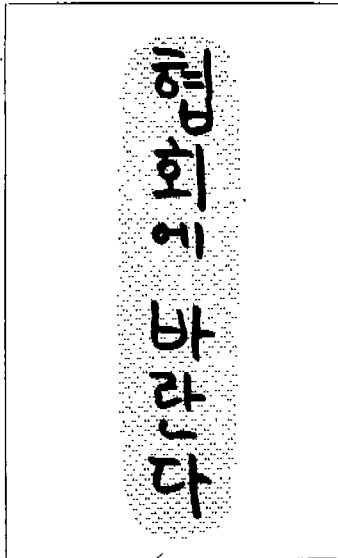
노장의 젊잖고 노련함이 오늘의 협회를 이룩했고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 없는 커다란 기구로 발전시켜 놓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.

이제 그 결정(結晶)을 노장들은 중장들에게 넘겨준 것이다. 바톤을 넘겨 받은 쪽은 젊음의 지산인 활기와 폐기로 이를 다듬어 완숙된 경지로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. 그것만이 이 거대한 사업을 물려준 노장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며 그럴진대 새 집행부는 보다 폭 넓게 그리고 심사숙고하며 우리네 당면과제를 차근 차근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. 매우 개선, 자질향상, 대동단결등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노력동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정의와 사랑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안다. <중령, 국민간호학교 학생대장>

地方회원에 한결같은 배려있길

崔 明 聖

대한간호협회의 새로 구성된 임원진의 면모를 볼때 젊고 폐기가 증만한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 크며, 간호협회의 전통을 잘 살려 나갈 것을



바라는 가운데 새로운 “간호원상”을 이룩해 주기 바란다.

특히 일선회원들의 質的양성을 위해 강습회동을 자주 마련하여 참여의 기회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고,

회원등록시기가 왜야 비로소 협회의 「노크」를 받고있다는 인식을 한 회원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사업을 전개해 주기 바란다. <부산메리놀간호학교 조교수, 수녀>

多角的사업 벌려

참여의 기회를

崔 允 禎

전국간호원들의 대변기관인 협회에 항상 관심과 기대를 걸어왔던 회원의 한사람으로 새로운 임원진의 막력있는 활약에 기대가 크다.

협회의 회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도 방대해져야 할 것은 틀론이거니와 회원간의 친목과 단결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본다.

다각적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을 벌려 전국의 회원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협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바란다.

또한 의트계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의 간호계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로 정책적인 색신 있길 기대해 본다. <서울대학병원 간호감독>